

בֵּית סֵפֶר (책의 집)

『사랑이 한 일』

이승우 씀, 문학동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가 어떻게 시험이 되겠느냐.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요구된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만이, 오직 사랑만이 바쳐질 수 있다.
바치기가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면 어렵게도 할 수 없게 된다.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일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암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사순절(四旬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1인 1봉사 자원자: 낮 예배 후, 본당
3. 향촌직 공부 및 독서 모임: 3월부터 6월까지 넷째 주일 예배 후 모입니다.
4. 사순절 묵상, '일상의 기도' 훈련: 22일부터 4주간 오후 2시, 소예배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5. 여천남시찰회: 25일(화) 오전 11시, 본당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혼을 허무에 빠뜨리지 않도록
감사로 채워봅시다.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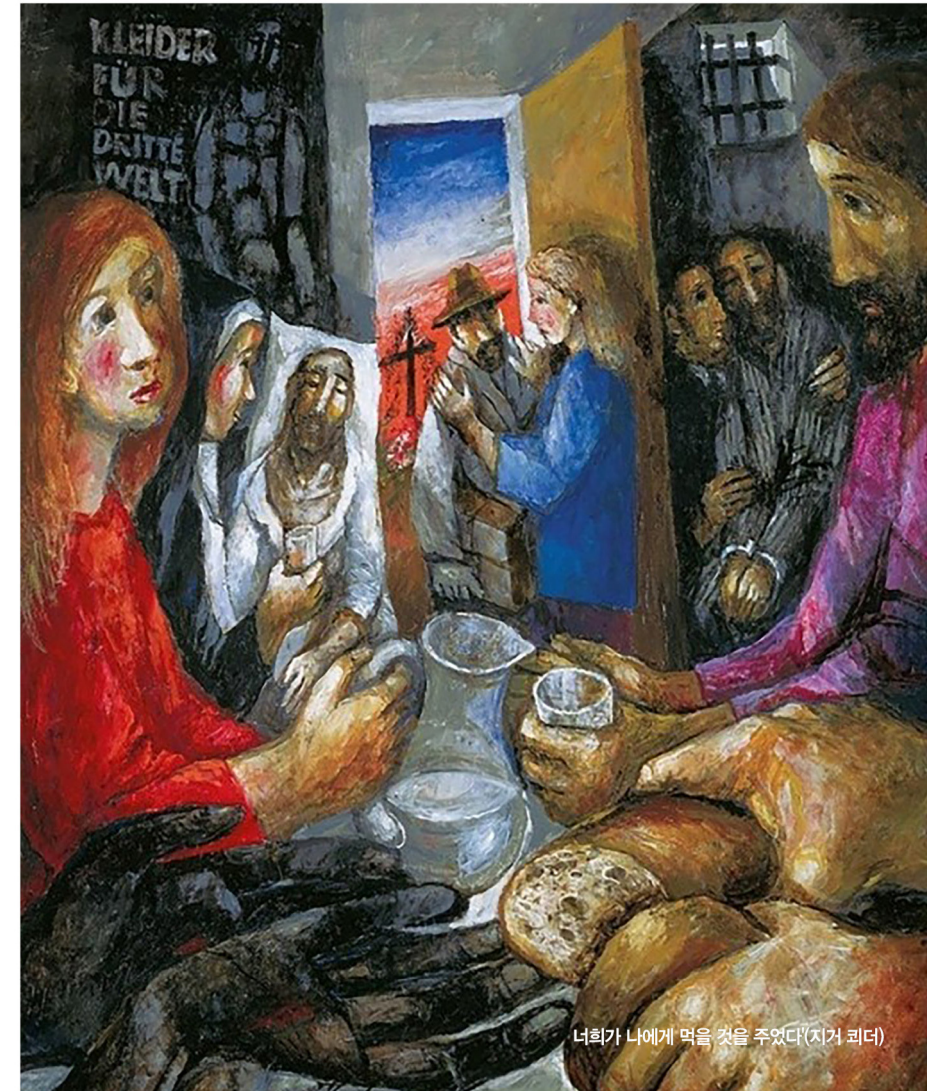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저 쿼터)

제51권 11호

2025년 3월 16일(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21:1-2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148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27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413장(3절 후, 간주)
기 도	김영준 장로
* 성 경 봉 독	시편 27:1, 10, 14(구약 820쪽)
찬 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말 씀 선 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결단의 찬송과 기도	204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양해룡 장로

- * 3월 안내위원 : 김양자, 정희숙, 조정순, 김염희
- * 3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3월 주방봉사 : 6, 9구역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빛, 공간, 열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그분이 내 편이시니, 나 두렵지 않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겁나지 않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마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시편 27:1, 10, 14/메시지성서)

섬 김 주 일

낮 예배 후
남녀선교회 월례회 정 한 장 소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신대심 권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1:1-4(신약 111쪽)
말씀선포와 기도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강미숙 집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20일(목)	누가복음 13:1-21
17일(월)	누가복음 12:13-34	21일(금)	누가복음 13:22-35
18일(화)	누가복음 12:35-48	22일(토)	누가복음 14:1-14
19일(수)	누가복음 12:49-59	23일(주일)	누가복음 14:15-24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이것이 구원으로구나

(신명기 26:1-11)

[성서일과표/신명기 26:1-11, 시편 91:1-2, 9-16, 로마서 10:8-13, 누가복음 4:1-13]

오늘 본문은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야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 붙여 살면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강한 손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유월절마다 반복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둘 때와 유월절마다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햇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 단순하지만, 그들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온갖 좋은 것으로 경축하십시오. 레위인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이십시오.”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지요?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은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이웃 특히 약자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가 자연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소박한 당부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모형이라면, 실망스러우신가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오병이어가 생각났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네 개의 동사(take, bless, break, give)를 사용하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주의 깊게 살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떼어 나눌 때 거기서 기적이 시작된다고 힘써 말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들이 구원과 기적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라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그분을 소비해버립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소비하지요. 사탄의 시험은 지혜자와 예언자들의 영적 상상력을 문자주의나 기복주의로 소비하는 인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박한 일상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582장 가사를 쓴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짙은 어둠이 드리웠을 때,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벽을 보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였지요.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출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아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역동적인 삶인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볼프강 콜하제의 ‘언어의 발명’을 원작으로 한 ‘페르시아어 수업’(Persian Lessons)이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수용소에 끌려온 질은 자신을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인으로 속인 후, 한 독일군 장교에게 페르시아어 단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아랍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수많은 단어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했지요. 서로 속내를 내비칠 만큼 가까워진 어느 날 질은 다윗의 별이 달린 한 유대인의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수용소를 향해 떠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장교는 쫓아가 질을 구한 뒤, 이름 없는 유대인들 무리에 끼여 대신 죽으려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질은 “이름이 없는 건 당신들이 알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은 그저 혐오의 대상이며 숫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질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자를 돌보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 나치는 패전이 다가오자 악행을 감추기 위해 유대인 명부를 태웠지만, 질은 자신이 기록한 2,840명의 이름을 기억해 냅니다. 그 이름들에서 힌트를 얻어 가짜 페르시아어 단어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돌을 황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으십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머리까락 하나 상하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끝없는 시험에 빠뜨리지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떼어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나눌 때,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의 이웃과 나눌 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 된 예수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살롱.